https://doi.org/10.21186/IPR.2023.8.4.113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민철기
신한대학교 대학원 남북협력복지행정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Cheol-gi Min
Professor of Global Convergence Welfare at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역할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 효과의 영향 관련성 파악을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국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520명의 대상자 중에서 총 501부를 최종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통계기법은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중집단분석, 부트스트랩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득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경제활동, 주택 보유 형태와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청년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single youth househol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effect of pare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elf-written survey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 across the country through an online survey institution, regardless of gender, and used a total of 501 copies out of 520 subjects for final results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and AMOS 25.0 programs, and the applied statistical techniques included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ulti-group analysis, and bootstrap.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single youth household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income and income satisfaction,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economic activity, housing ownership type, and class consciousness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various community program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ingle youth households.

Key Word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Lifestyle,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본 논문은 신한대학교 민철기 박사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12 Oct 2023, Revised 19 Oct 2023
Accepted 24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Cheol-gi Min
(Shinhan University)
Email: sea275@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인구 동향에서 가구원이 1명인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 연령의 상승과 미혼율 및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의·식·주와 문화, 교통, 교육, 국방, 환경 등 인간 삶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청년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저성장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된 환경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현상까지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는 실정이다[1].

박지혜와 장영은(2022)의 연구에서 현재 청년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2]. 많은 연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취업 문제, 주거 문제, 청년 빈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건강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 분석에서 보듯이 매우 희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만족도나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라이프 스타일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심층적인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로 삶의 만족도와 많이 연구된 대인관계,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까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여 대인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까지 살펴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분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조절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한 관계를 파악해봄으로써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그들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떠한 만족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대인관계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를 연구하여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의 지침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년 1인 가구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후반부터이며, 20세기를 거치면서, 청년은 산업 일꾼, 민주화 투사, 계몽주의자, 반공 전사, 국가건설의 주역 등으로 불리며 시대적 변천과 함께 변화되어왔다[3].

개인별 소득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도는 증가하였고, 생활방식과 삶의 방식, 가치관, 경제 관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과거 '결혼적령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인 나이는 늦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고용이 확대되어 자아실현과 사회활동 참여 증가 폭이 동반 상승한 요인은 결국 가정·출산·육아의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전통적인 개념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보다는 개인 삶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하여가기 때문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추세는 젊은 층에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곧 저출산·고령화 등 가구 구조변화, 인구 구조변화와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5년 통계청이 사용하기 시작한 1인 가구라는 용어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에게 있어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1인 가구 개념의 통일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1인 가구를 가구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최근 통계청에서의 1인 가구에 대한 개념은 실생활 여건(학업, 직장, 취업, 혼인, 사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혼자 거주하게 된다면 1인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고려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통계청에서 해석하고 있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없이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의 사전적 의미는 way of life, way of living, manner of living으로 생활양식(生活樣式), 삶의 방식을 뜻한다.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은 심리학 3대 거장(Sigmund Freud, Carl Jung, Alfred Adler) 중의 한 명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해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 습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정의했고 "일상에서 삶의 목표를 위해 반복되는 행위가 쌓이면 그것은 곧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주장했다[5].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연구한 논문은 희박하여 연구 대상을 노인과 실버 소비자 그리고 청년과 장년층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비교해보기 위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재철(2014)은 실버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실버산업의 선호도 측정을 연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실버 서비스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에는 VALS-Ⅱ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6]. 실행형, 성취형, 노력형, 체험형, 만족형, 실현형, 확신형, 분투형의 8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 정의 또는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연구자마다 표준화된 조사항목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서로 다른 분류기준이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라이프 스타일을 개념화, 그룹별 유형화,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임의·작위·조작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의 측정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가치관, 생활방식, 생활 패턴을 가치체계에서 분석함은 물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와 더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VALS-Ⅱ 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A.I.O.의 관점에서 중복되는 요소와 측정항목을 VALS-Ⅱ와 비교·수정·채택하여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성향별 유형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개념을 국외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Neugarten·Harvighurt·Tobin (1961)의 삶의 만족도 측정(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연구에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분석·검증함에 있어 종속 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자기 자신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을 함께 지니므로 삶의 가치와 목표 또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여기는 낙천적 감정·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 모든 사람은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개인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수준과 현재의 생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경험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7].

최근까지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고용 환경에 관해 연구한 강승엽(2017),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이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혜미와 백승영(2021),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물리적 환경 변수인 상업, 의료, 공공, 문화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고 한 민충근(2021)에 그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심으로 추

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8-10].

이같이 같이 삶의 만족도를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정의와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스로 주관적인 만족을 기준으로 인식하여 유쾌하고 긍정적인 삶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이 실감하는 전체적인 삶의 충만함과 안녕감 그리고 개인의 기대 준거를 기준으로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충족되는 수준을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한다.

2.4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개인과 개인 서로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나 그룹, 모임, 조직을 전제로 하는 인간관계와는 구별되기도 한다.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고[11], 인간의 내적인 성격 형성에 있어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대인관계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12].

삶의 경험으로부터 대인관계 이론을 정립한 Sullivan은 프로이드(Freud)의 성격구조 중 '자아'를 강조하면서 정신분석이론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는데, 성격이란 인간의 생활을 특징지을 수 있도록 구별되고 되풀이되는 인간관계 상황을 이해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13]. 즉,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특징적 방식이 성격이라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맺는 대인관계, 특히 사람들과의 친밀관계에 의해 일생동안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Leary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식적으로 분명하거나 상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라며, 대인관계의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 대인관계의 행동적 측면을 2개의 기본동기 즉, 통제(지배력, 힘)동기와 친밀감(우정, 애정)동기의 화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행동의 목적은 불안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 체제를 구축 또는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14].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자의 대인관계 구성요소는 각양각색으로 사용되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의 대인관계 구성요소를 본 연구와 대입해 보면, 청년 1인 가구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개인과 집단 상호간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감정이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자기 개방이 수반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 효과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의 구성 요인을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 4가지로 정리하였다.

2.5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지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반적으로 베버(Max Weber)로부터 시작한다. 베버는 계급(class)에 대해 개인들의 객관적 속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지위(status)는 사회에서 주어지는 명예 혹은 존경과 같은 상대적 위세로 결정된다고 보았다[15].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베버와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론에 근거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접근법으로 사회 계급을 계급(class), 권력(power), 지위(status)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마크르스 접근법은 권력(power), 소유권(ownership), 통제(control)에 초점을 두었는데, 대부분 개인의 지식, 기술, 자산, 신용의 측정과 관련된 베버의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16].

최근 연구들은 자본적 개념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족 자본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이 가족 자본에는 인적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 간의 관계까지도 사회적 자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17].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개인의 사회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틀림없으나, 합의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인간 발달 과정과 결부된 영향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청년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부모(편부, 편모 포함)가 사회적 구조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위치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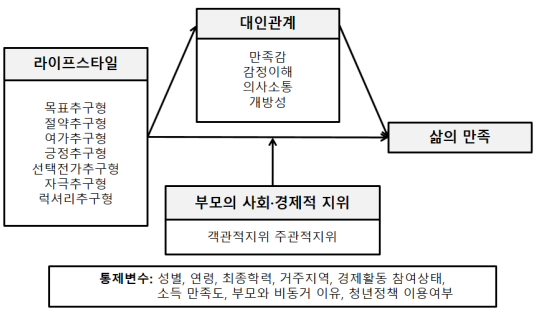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520명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의 범위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만 19세부터 34세 미만으로 하고, 표집 방법은 청년 1인 가구의 연령(만 19세~34세 미만)별로 적절한 수를 할당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 전문 조사기관인 dataSpring을 통해 이 기관에서 보유한 패널을 활용한 자기기입식(self-report)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1인 가구 총 520명의 대상자 중에 누락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19부를 제외한 최종 501명(남자 242명, 여자 259명)의 설문지를 선정하여 최종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연구 가설

가설 1.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둘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242	48.3
	여자	259	51.7
연령	20대	271	54.1
	30대	230	45.9
현 거주 지역	수도권(서울 및 경기)	299	59.7
	광역시	103	20.6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도시	81	16.2
	위 예시를 제외한 지역	18	3.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5	9.0
	전문대 재학	5	1.0
	전문대 졸업	79	15.8
	대학 재학	55	11.0
	대학 졸업	276	55.1
	대학원 이상	41	8.2
주된 경제활동	비 경제활동(소득없음)	62	12.4
	비 상용 근로(비 정규, 파트타임 등)	88	17.6
	상용근로(정규)	329	65.7
	고용주	8	1.6
	자영업	14	2.8
소득 만족도 (N=441)	매우 만족한다	10	2.0
	만족한다	77	15.4
	보통이다	175	34.9
	약간 불만족한다	124	24.8
	매우 불만족한다	55	11.0
부모와 비동거 이유	학업	69	13.8
	취업(직장)	367	73.3
	창업(자영업)	11	2.2
	기타	54	10.8
청년 정책 이용(지원) 경험 여부	있다	182	36.3
	없다	319	63.7
청년 정책 이용(지원) 경험이 없는 이유 (N=319)	청년지원정책을 같 몰라서	96	19.2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같 알지만 지원받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191	38.1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같 알지만 귀찮아서 또는 받기 싫어서	18	3.6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같 알지만 별로 도움이 안되서	6	1.2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같 알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8	1.6
전체		501	100.0

4.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라이프 스타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13, p<.001), 삶의 만족도는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63, p<.001).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상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332, p<.001), 가구 소득 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68, p<.001). 사회·경제적 지위(상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206, p<.001), 사회·경제적 지위(상하)는 대인관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07, p<.05).

4.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관측 변인이 잠재 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측 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관측 변인들의 요인 부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B	S.E.	β	C.R	p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	목표추구형1	1.000		.595		
	목표추구형	→	목표추구형2	1.002	0.099	.661	10.129***	<001
	목표추구형	→	목표추구형3	1.026	0.104	.634	9.907***	<001
	목표추구형	→	목표추구형4	0.793	0.095	.491	8.347***	<001
	절약추구형	→	절약추구형1	1.000		.607		
	절약추구형	→	절약추구형2	1.331	0.139	.729	9.587***	<001
	절약추구형	→	절약추구형3	0.766	0.093	.498	8.237***	<001
	여가추구형	→	여가추구형1	1.000		.588		
	여가추구형	→	여가추구형2	0.999	0.103	.667	9.702***	<001
	긍정추구형	→	긍정추구형1	1.000		.577		
	긍정추구형	→	긍정추구형2	1.262	0.103	.723	12.250***	<001
	긍정추구형	→	긍정추구형3	1.132	0.097	.674	11.699***	
	긍정추구형	→	긍정추구형4	1.421	0.112	.762	12.655***	<001
	긍정추구형	→	긍정추구형5	1.234	0.097	.771	12.741***	<001
	선택전가추구형	→	선택전가추구형1	1.000		.521		
	선택전가추구형	→	선택전가추구형2	0.964	0.111	.540	8.650***	<001
	선택전가추구형	→	선택전가추구형3	1.411	0.139	.724	10.141***	<001
	선택전가추구형	→	선택전가추구형4	1.614	0.157	.814	10.287***	<001
	자극추구형	→	자극추구형1	1.000		.695		
	자극추구형	→	자극추구형2	1.020	0.085	.710	11.945***	<001
	자극추구형	→	자극추구형3	0.730	0.078	.531	9.330***	<001
	자극추구형	→	자극추구형4	0.964	0.081	.687	11.859***	<001
	럭셔리추구형	→	럭셔리추구형1	1.000		.672		
	럭셔리추구형	→	럭셔리추구형2	0.704	0.097	.563	7.260***	<001
대인관계	대인관계	→	만족감	1.000		.860		
	대인관계	→	감정이해	0.602	0.048	.548	12.442***	<001
	대인관계	→	의사소통	0.688	0.048	.611	14.202***	<001
	대인관계	→	개방성	0.560	0.047	.527	11.883***	<00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1	1.000		.756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2	1.119	0.060	.825	18.580***	<001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3	1.176	0.063	.831	18.728***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4	0.912	0.060	.686	15.195***	<001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5	0.890	0.066	.616	13.529***	<001

* p<.05 ** p<.01 *** p<.0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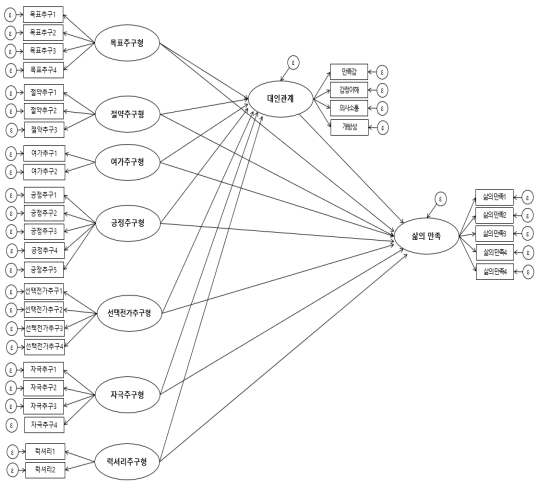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절약추구형	여가추구형	긍정추구형	선택전가추구형	자극추구형	럭셔리추구형	대인관계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	가구소득	부모 경제활동 상태	부모 주택 보유	부모 최종 학력	사회경제 지위 (상하)	가구 소득 만족도	삶의 만족
라이프스타일	1																			
목표추구형	.577***	1																		
여가추구형	.446***	.443***	1																	
절약추구형	.615***	.274***	.156***	1																
긍정추구형	.661***	.293***	.205***	.406***	1															
선택전가추구형	.374***	-.022	-.041	.099*	-.078	1														
자극추구형	.647***	.198***	.090*	.322***	.248***	.185***	1													
럭셔리추구형	.449***	.112**	.015	.288***	.254***	.005	.353***	1												
대인관계	.589***	.379***	.273***	.380***	.668***	-.081	.338***	.234***	1											
만족감	.554***	.348***	.223***	.325***	.729***	-.080	.231***	.246***	.795***	1										
감정이해	.423***	.310***	.321***	.244***	.433***	-.118**	.262***	.178***	.792***	.470***	1									
의사소통	.425***	.232***	.087	.313***	.490***	-.006	.286***	.118**	.831***	.520***	.526***	1								
개방성	.456***	.314***	.247***	.330***	.407***	-.048	.307***	.204***	.721***	.436***	.465***	.543***	1							
가구소득	.119**	.115**	-.002	.110*	.125**	-.039	.076	.081	.164***	.130**	.124**	.125**	.143**	1						
부모 경제활동 상태	.094*	.036	.097*	.048	.106*	.045	.003	-.009	.056	.080	.039	.003	.060	.159***	1					
부모 주택보유	.074	.102*	.151***	.010	.132**	-.070	-.016	-.043	.107*	.104*	.109*	.061	.055	.190***	.238***	1				
부모 최종학력	.082	.017	-.024	.084	.053	.086	.048	.019	.004	.047	-.019	-.008	-.018	.144**	.100*	.047	1			
사회경제지위(상하)	.206***	.033	.041	.120**	.258***	.092*	.066	.103*	.107*	.181***	-.014	.106*	.045	.176***	.174***	.201***	.290***	1		
가구소득만족도	.201***	.019	-.042	.122**	.288***	.097*	.075	.107*	.180***	.213***	.056	.189***	.088	.217***	.085	.076	.103*	.370***	1	
삶의 만족	.513***	.191***	.089*	.420***	.634***	.092*	.217***	.192***	.563***	.642***	.307***	.457***	.318***	.131**	.074	.072	.110*	.332***	.368***	1

* p<.05 ** p<.01 *** p<.001

하량이 유의하게 나타나 관측 변인들이 해당 잠재 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4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며,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부적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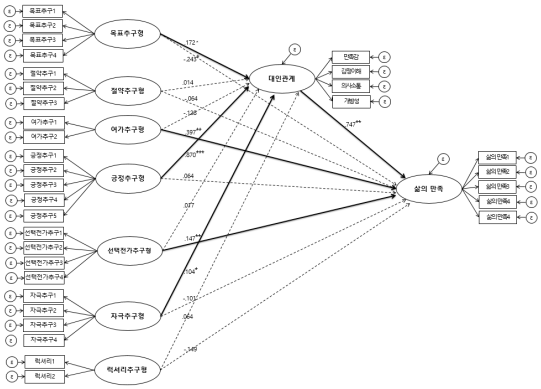


[그림 2] 세부적 연구 모형

4.5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구조모형에서 잠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추구형, 긍정추구형, 자극추구형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높아지고, 여가추구형과 선택전가추구형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4.6 매개효과 검증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긍정추구형이 대인관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β=.650, p<.05). 따라서 긍정추구형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는 긍정추구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effect	95% CI		p
			LLCI	ULCI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128	-0.025	0.533	.107
	절약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011	-0.183	0.218	.882
	여가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095	-0.655	0.006	.240
	긍정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650*	0.110	1.810	.024
	선택전가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013	-0.100	0.163	.766
	자극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078	-0.019	0.386	.103
	럭셔리추구형→대인관계→삶의 만족도	0.048	-0.067	0.383	.387

* p<.05 ** p<.01 *** p<.001

4.7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조절효과 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소득, 경제활동, 학력, 주거)와 주관적 지위(소득만족, 사회계층적 지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객관적 지위에서는 소득 항목에서만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학력, 주거 항목에서는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지위에서는 소득 만족 항목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 계층적 지위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가구소득의 집단 경로분석 결과

경로			소득 399만원 이하 집단			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			CRD
			B	S.E.	β	B	S.E.	β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 대인관계	0.206	0.122	.177	0.147	0.172	.112	-0.282
	절약추구형	→ 대인관계	0.009	0.129	.008	0.059	0.131	.057	0.271
	여가추구형	→ 대인관계	-0.114	0.126	-.121	-0.167	0.205	-.143	-0.219
	긍정추구형	→ 대인관계	1.115	0.166	.855***	0.930	0.138	.919***	-0.852
	선택전가추구형	→ 대인관계	-0.035	0.051	-.037	0.162	0.120	.113	1.515
	자극추구형	→ 대인관계	0.125	0.071	.125	0.067	0.094	.066	-0.483
	럭셔리추구형	→ 대인관계	0.014	0.110	.014	0.087	0.065	.130	0.568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 삶의 만족도	-0.483	0.209	-.360*	-0.102	0.205	-.073	1.301
	절약추구형	→ 삶의 만족도	-0.082	0.176	-.057	0.031	0.154	.027	0.483
	여가추구형	→ 삶의 만족도	0.608	0.222	.558**	0.049	0.250	.039	-1.672
	긍정추구형	→ 삶의 만족도	-0.478	0.517	-.319	1.055	0.463	.971*	2.207*
	선택전가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86	0.072	.171**	0.396	0.178	.256*	1.094
	자극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48	0.107	-.129	-0.012	0.113	-.011	0.873
	럭셔리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41	0.162	-.121	0.000	0.081	.001	0.778
	대인관계	→ 삶의 만족도	1.197	0.386	1.040**	-0.097	0.417	-.090	-2.280*

* p<.05 ** p<.01 *** p<.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표 6〉 가구소득 만족도의 집단 경로분석 결과

경로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			CRD
			B	S.E.	β	B	S.E.	β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 대인관계	0.117	0.132	.112	0.233	0.140	.158	0.606
	절약추구형	→ 대인관계	0.067	0.115	.068	0.106	0.146	.061	0.211
	여가추구형	→ 대인관계	-0.036	0.115	-.038	-0.193	0.182	-.196	-0.729
	긍정추구형	→ 대인관계	0.813	0.090	.846***	1.363	0.307	.851**	1.717
	선택전가추구형	→ 대인관계	0.074	0.059	.072	-0.126	0.094	-.108	-1.805
	자극추구형	→ 대인관계	0.127	0.060	.146*	0.071	0.102	.063	-0.477
	럭셔리추구형	→ 대인관계	0.041	0.080	.049	0.073	0.096	.086	0.251
라이프스타일	목표추구형	→ 삶의 만족도	-0.407	0.302	-.358	-0.326	0.207	-.205	0.221
	절약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56	0.226	-.146	-0.078	0.184	-.041	0.269
	여가추구형	→ 삶의 만족도	0.393	0.244	.372	0.537	0.274	.507*	0.395
	긍정추구형	→ 삶의 만족도	-0.840	1.102	-.802	-0.002	0.704	-.001	0.641
	선택전가추구형	→ 삶의 만족도	-0.069	0.154	-.061	0.423	0.131	.336**	2.432*
	자극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93	0.201	-.204	-0.147	0.125	-.122	0.194
	럭셔리추구형	→ 삶의 만족도	-0.167	0.168	-.183	-0.189	0.134	-.208	-0.098
	대인관계	→ 삶의 만족도	1.903	1.306	1.746	0.849	0.443	.789	-0.764

* p<.05 ** p<.01 *** p<.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와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경우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프 스타일의 7가지 유형 중에서 여가추구형과 선택전가 추구형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여가추구형과 선택전가 추구형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긍정추구형은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추구형, 절약추구형, 자극추구형, 럭셔리추구형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프 스타일의 긍정추구형은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는 긍정추구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객관적 지위에서는 소득 항목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지위에서는 소득만족 항목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적 지위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5.2 함의 및 제언과 한계점

본 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 효과에 대한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에 있어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자리 잡은 중·장년, 베이비부머, 노년 세대 등의 라이프 스타일 경향을 연구하는데 제한적·한정적이었던 면을 벗어나 청년 1인 가구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에 투영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청년 1인 가구

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고, 대인관계의 매개역할이 검증되었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다르게 '소득'과 관련된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과 실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높여야 한다. 둘째, 청년 정책의 수혜적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정책의 알림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1인 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면서 제시하는 7가지 유형에 대한 한계가 있다. 둘째, 청년 1인 가구의 표집 방법의 한계가 있다. 설문지를 통해 각 변인별 개별적 의미와 특성에 대해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청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영향성을 파악하는 연구였으나 그 대인관계를 질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는 한계로 작용한다.

References

[1] 최순종(2019),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pp. 253-273.

[2] 박지혜·장영은(2022), "1인 가구 청년의 주관적 건강 영향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pp. 2857-2872.

[3] 이기훈(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4] 통계청(2022), 통계 표준용어 및 지표.

[5] Adler, A.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W. B. Wolf, Trans.), New York: Fawcett Premier. (Original work published 1927)

[6] 김재철(2014), "실버서비스 유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Research. 34(1).

[8] 강승엽(2017), "주거환경과 고용환경이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혜미·백승영(2021),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이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6), pp. 845-856.

[10] 민충근(2021),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Fromm, E. (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Schutz, W. C. (1958), FIRO: A t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Glasser, W. (1965), Reality therapy: A new approach to psychiatry, New York: Harper & Row.

[12] 노안영·강영신(2022), 성격심리학, 학지사.

[13]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14] Baumeister, R. F. & Leary, M. R. (2017),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Interpersonal development, pp. 57-89.

[15] 박희훈(2017), "대학 서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직업 지위 간의 경로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주미현(2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행위 및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장영은(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6(6), pp. 1-21.

[18] 김근영·곽금주(2015), "사회·경제적 지위 (SES) 와 청소년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청소년학연구 논문 개관을 통해 본과제와 제언", 청소년학연구, 22(11), pp. 269-297.

민 철 기(Min Cheol-ki)

- 2022년 02월: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남북협력행정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22년03월~현재: 경인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 신한대학교 지역사회복지연구소 부소장
- 관심분야: 청년정책, 라이프스타일
- E-Mail: sea275@naver.com